

럭키 「제4세대」 강력 抗生劑 개발 現代 자동차엔진 國産化 성공

▲ 럭키

럭키는 10일 自社 정밀화학 연구팀(팀장 金容柱 박사)이 지난 4년간 50억원을 투입, 세계최초로 신규세파계(Cephalosporin) 항생제를 개발, 英國의 글락소社와 특허 및 노우하우실시권 허여, 기술 및 정보 이전과 이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崔根善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글락소社와는 3년간 임상실험 착수금 1백억원, 15~17년간 경상로열티·실정용원 재공급 등을 포함, 연간 5백억~6백억원의 수출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럭키연구팀이 개발한 세파계항생제는 제4세대에 속하는 최신항생제로 지금까지 나온 1, 2, 3세대가 페렴·기관지염·요로감염증·패혈증 등에 선택적으로 효능이 있는 것과는 달리 독성이 거의 없으면서도 살감염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럭키는 글락소社와 공동 효능시험결과 현재 판매중인 세포타지담(韃士社) 세프타지담(글락소社) 등 제3세대항생

제에 비해 그람양성균(페렴·기관지염·뇌막염 등)에 대해서는 10배, 녹농균(요로감염증·혈증 등)에는 5배 이상의 살균력을 지니고 있고 약효지속성도 2배 이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럭키는 이 연구과정에서 현재 세계 28개국에 물질특허 10件을 출원중이다.

한편 세계 제2위 제약회사인 글락소社는 케양치료제인 잔탁, 항생제 세프타지담을 주요 품목으로 연간 3조4천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글락소社는 이번에 럭키에서 이전한 31개 항생제群을 임상실험을 거쳐 95년께 상품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現代自動車

現代自動車(대표 全聖元)가 국내 최초로 독자설계한 엔진(알파엔진) 개발에 성공, 국산 자동차의 기술자립 시대를 열었다.

이번에 개발된 엔진은 자연흡기엔진(NA)·過給機엔진(터보식) 등 2종이며, 이에맞는 수동 및 자동식 변속기도 독자 개발했다.

現代는 이 엔진의 개발을 위해 지난 84년 7월 麻北里 연구소 설립과 함께 「신엔진 개발팀」을 구성한 이후 5년 6개월동안 9백16억원을 투자했다.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업계는 60년대 반제품 조립단계, 70년대 고유모델 승용차 개발단계, 80년대 양산체제를 갖췄으나 엔진부문에서는 모두 외국업체의 설계도와 기술을 도입, 생산해 왔다.

알파엔진은 첨단 멀티밸브식의 1천5백cc급(1천4백95cc) 4기통 가솔린엔진으로 1개 실린더당 3밸브(흡기 2, 배기 1)로 모드 12밸브다.

이 엔진은 연료분사·점화시기 등을 컴퓨터로 제어, 출력과 연비가 높고 공해가 적은게 큰 특징이다.

자체 시험결과 알파엔진의 자연흡기식은 시속 60km에서 1백km로 추월가속시간이 기존의 스쿠프(11.2초), 日本 혼다의 CRX3 V(11.0초)보다 빠른 10.4초며, 연비도 정속(시속 60km) 주행시 20.2km/l로 혼다 CRX(19.4), 스쿠프(18.6)보다 높은 에너지절약형이다. 최고 시속은 1백70km 이상이다. <♣>